

정지용의 초기시와 장소의 근대성

심재휘(대진대)

< 목 차 >

1. 서론
2. 우울한 개인과 장소
 - 2-1 감각의 활용과 장소의 사유화
 - 2-2 연출된 장소와 지용의 근대
3. 결론

국문초록

정지용의 첫 시집 『정지용시집』(1935)에 나타난 장소를 살폈다. 공간과 달리 장소는 구체적인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장소에는 경험을 감각적으로 주관하는 개인이 등장한다. 이런 점에서 시에 등장하는 장소의 양상은 근대성을 파악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20년대를 대표하는 시집으로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있고 30년대에는 『정지용시집』이 있다. 두 시집에 등장하는 장소를 비교하면 지용 시의 근대성을 더욱 잘 살필 수 있다. 지용은 매우 섬세하고 예민한 감각 표현을 활용하였다. 감각을 소유한 개인의 등장은 필연적이다. 주체적 개인의 시선에 의해 확보되는 장소는 더욱 경험적일 수밖에 없다. 장소감이 선명한 것도 당연하다. 이점에서 지용은 소월의 20년대 시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지용은 유학생생활에서 습득한 서구의 문예이론을 본인의 창작에 적극 실험하였고 성공하였다. 이 와중에 그가 경험한 근대와 근대에 대한 자의식을 특정한 장소감으로 표출하였다. 장소에 투영한 경이감, 만족감도 초기시를 구

성하는 정서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울의 표정이다.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젊은 나이에 근대문명과 제국의 도회를 경험한 유학생으로서, 지용이 연출한 근대적 장소에는 자주 우울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유발하는 현실인식은 깊이 있는 문제의식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한 개인의 낭만적인 우울로 수렴되고 말았다. 비록, 이것이 당대 조선 문인의 어쩔 수 없는 선택 중의 하나라 해도 우울의 정체를 간과하지 못한 것은, 정지용 시의 한계가 되었다.

핵심어 : 장소, 장소감, 개인, 근대성, 우울

1. 서론

한국의 근대시가 근대시로서의 위상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김소월과 정지용이 보여준 시도와 성과는 놀랍다. 소월은 재래 시가인 민요의 특징을 승계하면서도 그것에 담긴 전근대의 요소를 근대의 양식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다. 서구의 문예사조를 흉내 내려고 애썼던 20년대 문단에서 『진달래꽃』(1925)은 근대시로의 의미 있는 진입을 보여주었다. 소월은 전통의 근본을 이으면서도 근대시의 본질을 잊지 않았고 그것을 작품으로 보여주는 데 성공하였다. 문학사에서 그의 업적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이다.

이에 비해 외래의 창작방법을 적극 수용한 지용은 소월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지점을 보여주었다. 시가 감각에 호소하는 예술이라는 것을 실천했다. 비록, 이삼십 년대가 근대 문학기였다 해도 당대는 여전히 창작의 전근대적인 요소와 미흡한 결과물들이 상존하던 과도기라 할 수밖에 없는데 지용은 그 당시에 근대적 창작방법을 누구보다 성공적으로 선보인 장본인이 되었다. 더욱 특화된 개인의 구축과 그로 인한 경험의 구체성을 시 창작에 도입함으로써 지용은 세계를 살아내는 개인, 개인이 소통하는 세계, 그리고

공감의 극대화라는 근대시의 면모를 한층 강화했다. 조선의 근대시가 지용에게서 시작하였다는 김기림의 극찬이 가능했다. 그의 시가 선보인 예민하고도 다양한 표현과 그로인해 발생하는 감각적인 이미지는 이전의 시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시와도 확연하게 달랐다. 이러한 양상은 ‘장소의 창조’라는 측면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얻었다.

이 글의 목적은 1935년에 발간한 『정지용시집』을 분석하여 정지용의 시가 어떻게 우리 시의 근대성을 더욱 견고하게 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¹⁾ 특히, 시에 등장하는 장소의 양상과 그 의미를 분석하여 개인, 즉 근대적 주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지용이 보여주고자 한 근대의 표정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급격하게 진행되었던 우리 시의 근대화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살피는 연구는 사실 많은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결과를 성취한 것이기도 하다. 이 글이 기존연구로부터 조금 다른 분석의 결과를 얻기 위해 ‘장소’에 주목하려 한다.²⁾

시에 등장하는 공간은 물리적 배경으로서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창작에서 공간의 활용은 시기와 지역을 불문하고 일반적이지만 시에 적용하는 공간의 성질과 그것을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 동서와 고급의 차이가 발생한다. 게다가, 공간은 시인 개개인의 고유한 창작방법을 담아내는 도구이므로 시인의 특성을 밝히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한때, 작품 속에 구현된 공간이 주목을 받으면서 다양한 연구를 이끌어냈다. 작품 속의 공간을 분석하며 그것을 시인의 내면이 투영된 ‘주관의 지향

-
- 1) 분석 텍스트를 『정지용시집』에 국한하는 것은, 30년대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 2) 정지용 시를 장소론으로 분석한 논문 중에 이 글이 주목한 것은 다음과 같다. 이들의 논문에 대해서는 논의를 전개하면서 설명을 하기로 한다. 남기혁, 「정지용 초기시의 보는 주체와 시선의 문제」, 『한국현대문학연구』, 한국현대문학회, 26, 2008. 윤의섭, 「정지용 후기시의 장소성」, 『현대문학이론연구』 46,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이광호, 「정지용 시에 나타난 시선 주체의 형성과 변이」, 『어문논집』 64, 2011. 송기환, 「정지용 시에서의 바다의 의미」, 제32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2013. 조명숙, 「장소와 ‘감각’의 상관성 연구-정지용의 초기시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42, 2014. 김동희, 「정지용과 ‘교토’라는 장소」, 『한국시학연구』 45, 한국시학회, 2016.

상'으로 파악했다. '주관의 지향성' 연구는 현상학적 논리에 가장 근접해 있다. 이러한 논리로 접근할 때의 문제는 내면과 주관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모든 공간 현상을 주제 파악에 예속시키면서 발생한다. 결국, 현상학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공간 분석은 주제를 파악하거나 시인의 의도를 가늠하는 내재분석의 일환으로 전락한다.

장소 연구에서는 공간과 장소를 분리한다. 범박하게 말하자면 공간이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장소는 개인의 경험에 유착한 실체이다. 시인의 문학관과 세계관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시인이 연출한 장소는 시인 개인의 취향에서부터 역사 및 당대의 사회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식의 요소들을 함유한다. 전근대의 문학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장소는 근대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팀 크레스웰은 장소를 권력의 맥락에서 의미가 부여된 공간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그는 공간이 장소로 탈바꿈해 가는 과정에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애착이 발생한다고 보았다.³⁾ 이러한 논리에 기초한 장소 분석은 단순한 내재 분석을 넘어선다. 또한, 시인의 문학관과 현실인식, 그리고 창작 시기의 문예의식 등을 살피는 것이 가능하다.

메를로 폰티는 이 푸 투안처럼 공간을 공간과 장소로 구분한다. 투안이 “공간은 장소보다 추상적이다. 무차별적인 공간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공간의 가치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공간은 장소가 된다”⁴⁾고 말했는데 폰티는 “장소성”을 좀 더 구체화해서 “상황성(situation)”⁵⁾을 말한다. 그에 의하면 타인들과 소통하는 사건이 늘 직·간접적으로 벌어지는 곳, 혹은 경험에 밀착한 느낌이나 사유에 형상의 옷을 입히는 곳이 장소다. 그곳에는 늘 상황이 발생한다. ‘상황성’은 개인의 행위를 전제로 한다. 당연하게도 그 행위에는 개인의 미적 판단이 선행한다.

그러다보면, 시인들에게는 집착하는 장소가 생기게 마련이다. 즐겨 도입하

3) 팀 크레스웰, 심승희 역, 『장소』, 시그마프레스, 2012년, 1-22쪽 참조.

4) 이 푸 투안, 구동희 외 역, 『공간과 장소』, 대운, 2005, 19쪽.

5) 메를로 폰티, 류의근 역,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02, 329쪽.

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 지점에서 장소 정체성이 생긴다. “장소는 그것을 경험하는 주체의 인식 작용과 상호 결합하여 정체성을 드러내게 된다.”⁶⁾고한 렐프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한다. 장소 연구는 장소의 정체성에 대한 분석이기도 하다. 한 시대를 살았던 시인의 다양한 가치관과 창작방법을 파악하는 또 다른 통로가 되는 셈이다.

사실, 근대 들어 관심을 받기 시작한 장소 개념은 지리학에서 얻어온 것이다. 지리학의 경우, 지역이나 경관 등과 장소를 구분한다. 지형, 기후, 식생, 인구 등의 차이를 중시하는 것이 지역(Region)개념이라면 장소는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전제한 개념이다. 경험의 특수성, 고유성, 개별성을 강조한다. 이에 비해 공간은 한 지역 특징의 보편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등장한 용어이다. 그러므로 공간은 추상적인 개념을 지향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⁷⁾ 주체적 개인의 경험의 유무와 깊이를 살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학연구에 적용하는 장소는 공간에 비해 근대성을 파악하는 기준점을 제공한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정지용시집』에 나타난 장소이다. 지용 시에 장소가 어떻게 발현하는지를 세밀하게 살펴 그가 확립하고자 한 근대를 파악한다. 이는 근대시의 핵심인 주체적 개인이 어떻게 구축되는지를 파악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개인의 감각경험이 풀어지는 공간은 사유화된 경험을 선취하는 도구가 되며 이때의 공간은 단순한 추상성을 넘어서는 장소로 전환하는데, 이 순간의 장소에는 필연적으로 감각을 주관하는 개인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2. 우울한 개인과 장소

2-1 감각의 활용과 장소의 사유화

6)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109쪽.

7) 심승희, 「장소 개념의 스펙트럼과 잠재력」,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편, 『현대문화지리의 이해』, 푸른길, 2013, 81-119쪽 참조.

20세기 초의 우리 시가 근대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힘은 근대적 주체의 탄생에서 비롯한다. 근대적 주체로서 개인의 등장은 시문학을 공동체의 것에서 창작자 개인의 것으로 격상한다. 전통 시가가 권력적 미학 질서에 종속된 지식인의 이념이나 오랜 시간 동안 민중 속에서 합의된 공동체의 무의식에 기초한 것이었다면 근대시는 주체적으로 사유하는 개인의 존재를 세상의 중심에 위치시킴으로써 이념과 실체의 모든 면에서 전근대의 견고한 관행을 뒤집었다.

정지용의 시를 언급할 때 감각의 활용에 대한 평가는 무엇보다 늘 우선되었다.⁸⁾ 감각 경험을 형상화하기 위해 지용은 언어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몇 안 되는 시론에서도 시의 예술성은 언어의 문제로 결국 귀착되게 마련이고 시인은 언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되 말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려서 드러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⁹⁾ 일찍이 김우창이 “감각과 언어를 거의 금욕주의적인 엄격함을 가지고 단련”¹⁰⁾하였다고 말했듯이 많은 이들이 지용 시의 특장으로 감각에 주목했다. 결국 시의 목표 중의 하

8) 이 점에 주목한 논문으로 조명숙, 「장소'와 '감각'의 상관성 연구-정지용의 초기 시를 중심으로」(『한중인문학연구』 42, 2014)가 있다.

9) 이승원, 「정지용 시론」, 『한국현대문학연구 2』, 1993, 303-304쪽. 대체로, 정지용의 시론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유기체적 시관이나 언어의 미의식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신주의이다. 유기체적 시관은 시의 일반에 관한 것이라 특별하지는 않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언어의식이나 정신주의에 방점을 둔다. 언어의 미의식에 관심을 보였던 정지용은 후일 「시의 옹호」에서 정신의 중요성을 말하기도 한 것인데 이승원도 이 정신주의가 언어의식과 더불어 지용 시론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한다. 한편, 권정우는 정신주의가 세속의 거부와 그것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관습적 시선으로 보는 것을 지양하고 구도적 자세로 올바르게 보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 주장한다. (권정우, 「정지용 시론 연구」, 『개신어문연구』 25집, 개신어문학회, 2007, 참조) 하지만 정신주의는 그의 종교시나 백록담 이후에 더 잘 적용된다. 언어의 조탁에 심혈을 기울였던 그의 초기시에는 정신주의보다는 언어의 미의식에 관련된 신념이 더 지배적으로 발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더구나 30년대 중후반에 발표한 그의 시론들은 일찍부터 시작의 기본 전제로 작동되었던 것이라기보다 오랜 창작의 경험을 통해 얻은 생각들을 피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 김우창, 『궁핍한 시대의 시인』 1권, 민음사, 1977, 53쪽.

나는 언어를 예민하게 다듬어 새로운 표현을 창조하는 일인데 지용은 오감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는 개인을 섬세하게 구현함으로써 독자와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 글에서 주목하려는 것은 근대적 주체의 감각대상인 장소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장소에 내재한 경험의 구체성이 강할수록 개인의 존재감은 부각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포착된 장소를 경험 속에서 사유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장소는 개인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메를로 폰티의 ‘상황성’이 발생한다. 상황은 개인에 의해 주도되며 개연성을 지닌 시공간 연출로 완성된다. 장소가 발생하며 장소경험이 뒤따른다.

<비극>의 흰 얼굴을 뵈 적이 있느냐?

그 손님의 얼굴은 실로 미(美)하니라.

검은 옷에 가리어 오는 이 고귀한 심방에 사람들은 부질없이 당황한다.

실상 그가 남기고 간 자취가 얼마나 향(香)그럽기에

오랜 후일에도 평화와 슬픔과 사랑의 선물을 두고 간 줄을 알았다.

그의 발 움김이 또한 표범의 뒤를 따르듯 조심스럽기에

가리어 듣는 귀가 오직 그의 노크를 안다.

묵(墨)이 말라 시가 써지지 아니하는 이 밤에도

나는 맞이할 예비가 있다.

일찍이 나의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드린 일이 있기에

혹은 이 밤에 그가 예의를 갖추지 않고 올 양이면

문밖에서 가벼이 사양하겠다!

「비극」 전문

보는 행위와 듣는 행위, 그리고 약간의 후각 작용을 이용하여 비극과의 조우를 감각적으로 드러내려고 한 시다. 비극이라는 관념을 가시화, 가청화하려는 의도가 돋보인다. 이 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5행까지의 전

반부에서는 질문을 통해 독자와의 교감을 이끌어내며 비극에 대처하는 남다른 태도로 궁극증을 유발한다. 의인법에 기대어 상황을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없지는 않지만 판단을 진술하는 성향이 더 강하다.

하지만 6행부터 시작하는 후반부는 앞부분에 비해 상황이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다. 손님으로 묘사된 비극이 화자의 집에 찾아온다는 설정이다. 손님의 발소리와 노크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적 화자의 감각을 도드라지게 표출한다. 이때 개인의 존재감은 강화되며 그가 처한 공간은 노크소리를 가려 들으려는 자의 방안 즉, 시인이자 자식을 잃은 부모의 장소가 된다. 비록, 지용의 개인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심정은 특정한 장소와 특화된 행위를 연출한다. 표범의 뒤를 따르는 듯이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로 손님이 찾아오는 상황을 문 밖으로, 묵(墨)이 말라 시가 써지지 않는 화자의 처소를 문 안으로 설정했다. 안팎을 의도적으로 구분한 것이다. 문을 사이에 두고 나누어진 집밖과 집안은 화자의 눈과 귀를 통해 충분히 내면화된 장소로 전환한다. 죽음으로 추정되는 외부의 비극에 언제든지 맞대면하겠다는 의지 있는 한 밤의 문 닫힌 방안으로 모습을 갖는다.

지용은 이처럼 비극이라는 불투명한 관념의 전모를 설명하기 위해 극적인 상황을 구성한다. 연출의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상황 속에 놓인 개인을 좀 더 생생한 감각의 소유자로 만든다. 장소는 예민한 감각으로 인해 개인에게 복속되기 마련이며 사유화된다. 개인과 장소는 유기적으로 상생하며 시인의 사유와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지용은 이렇듯 근대시의 창작논리에 충실했다.

하지만, 「비극」은 『정지용 시집』에 실린 여타의 것에 비하면 감각이 예민하게 작동하는 편은 아니다. 35년에 『가톨릭 청년』에 실린 이 시는 시집이 나오기 직전에 발표된 것인데 이전에 발표된 시들에 비하면 다소 진술에 가까운 표현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지용이 스스로의 재기를 맘껏 발휘하던 시기에 비하면 다소 깊어진 사념의 정도를 볼 수 있고 이 경향은 『백록담』 시절로 연결된다 하겠다.

감각 활용은 오히려 창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기의 시들에서 더 빈

번하게 그리고 월등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 점은 그가 유학시절 서구 문예를 접하면서 성취한 재능을 창작에 도전적으로 반영한 결과이겠다.

수박 냄새 품어 오는
첫 여름의 저녁때……

먼 해안 쪽
길 옆 나무에 늘어선
전등. 전등.
헤엄쳐 나온 듯이 깜박거리고 빛나노나.

침울하게 울려오는
축항의 기적 소리……기적 소리……
이국 정조로 퍼덕이는
세관의 깃발. 깃발.

시멘트 깐 인도 측으로 사뭏사뭏 옮기는
하이얀 양장의 점경!

그는 흘러가는 실심한 풍경이어나……
부질없는 오랑쥬 껍질 씹는 시름……

아아, 애시리(愛施利) 황(黃)!
그대는 상해로 가는구료……

「슬픈 인상화」 전문

이 시는 26년 유월, 교토의 유학생 잡지인 『학조』 창간호에 실렸다. 지용의 초기 대표작이기도 하거니와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알리는 작품이기도 하다. 지용은 『학조』 창간호에 아홉 편의 시를 발표하기 이전까지는 동지사(同志社) 대학의 재학생 잡지에 일본어 시를 주로 실었을 뿐, 그때까지 우리말

시를 발표하지는 않았다.¹¹⁾ 당연하게도, 일본어 시를 지으면서 경험했거나 습득했던 서구 문예 기법들이 우리말 시 창작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인용한 시 「슬픈 인상화」는 제목에서 충분히 창작의 방향을 드러내고 있다. 시각과 청각, 그리고 미각 등의 이미지를 시작에 적용해보려는 의도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매우 구체적인 사물과 상황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는 감각의 소유자인 특정인이 행위자로서든 발화자로서든 시 속에 나타나야 하며 묘사된 특정인의 경험은 독자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초여름 저녁의 느낌을 “수박 냄새”로 연계한다든지, 작별의 상심을 “오랜 지 껌질”의 맛으로 환치한다든지 하는 것도 새롭지만 눈앞에 그려질듯 한 풍경의 묘사는 매우 감각적이다. 선별한 소재들과, 소재들을 형상화하는 방법이 회화의 그것에 가깝다, 뿐만 아니라, 낱말의 배열과 문장기호의 활용¹²⁾

11) 정지용은 유학을 가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이렇다할만한 창작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그가 발표한 시들 중에 가장 먼저 활자화된 것은 동지사대학교 재학생 동인지 『街』에 발표된 <新羅の石榴>(1925. 3) 등이다. 일본 유학 첫 해인 23년에 「압천」 등을 썼다고는 하나 그 해에 발표하지는 않았다. 이 시는 27년 6월 『학조』 2호에 「경도압천(京都鴨川)」으로 발표되었고 『정지용시집』에 다시 「압천」으로 실렸다. 『街』에 발표된 <新羅の石榴> 등은 일본어시일 뿐만 아니라 대학교 재학활동의 일환으로 재학생 동인지에 실린 것이므로 그의 공식적인 작품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비록 유학생 잡지라는 한계는 있지만 교토에서 발행된 『학조(學潮)』에 <카페·프랑스> 등 9편의 시를 실은 것이 가장 앞선 작품 활동이라고 하겠다. 그가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전까지는 유학 생활에 적응하는 문제도 있었거니와 정교한 일본어와 근대 문예를 습득하는 데 정성을 들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2) 시 형식을 고려하여 느낌을 창출해내려는 의도가 강하다. 말줄임표는 수박냄새가 희미해져가거나, 저녁 향구의 고적함이 점점 짙어지거나, 기적 소리가 잦아드는 효과를 적절하게 낸다. 더구나 여섯 번이나 등장하는 말줄임표는 말없이 시름에 빠진 화자의 내면을 가시적으로 기호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진등. 진등”, “깃발. 깃발”처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진등과 깃발의 풍경을 어휘의 배치로만 그려내듯이 표현한 것도 의도적이다. 실상, 이 작품이 26년 『학조』에 실렸을 때에는 기호를 이용한 실험성이 더 강했다. “電-燈. 電-燈”, “汽笛소리...汽笛소리...” “라든지” 旗入발 “을 상하로 배치하여 시각 효과를 늘린 것이 그 예이다.

을 통해 이 항구는 이별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만 하는 장소로서 특정한 분위기를 띄도록 그려진다. 비록, 순간적인 인상만 포착이 되어 묘사의 구체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거나 대상에 대한 시선 주체의 어떠한 지배력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는 평가¹³⁾에도 불구하고 유학 시절에 발표한 시로서, 장소감을 구축하는 감각은 남다르다. 이러한 장소감은 초기시의 대표작인 「카페 프란스」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된다.

옹겨다 심은 종려나무 밑에
비뚜로 선 장명등,
카페 프란스에 가자.

이놈은 루바슈카
또 한 놈은 보헤미안 넥타이
뺏적 마른 놈이 앞장을 섰다.

밤비는 뱀눈처럼 가는데
페이브먼트에 흐늬이는 불빛
카페 프란스에 가자.

(중략)

울금향 아가씨는 이 밤에도
경사 커튼 밑에서 조시는구려!

나는 자작의 아들도 아무것도 아니란다.

13) 남기혁은 시선의 주체가 대상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한 것, 그로 인해 인상주의적 기법으로 대상을 그려낼 수밖에 없었던 점을 주체적 시선으로 조망할 특권적 위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았다. 시선 주체는 권력의 감시를 피해 풍경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강조했다. 남기혁, 「정지용 초기시의 보는 주체와 시선의 문제」, 『한국현대문학연구』, 한국현대문학회, 2008. 12, 170-171쪽.

남달리 손이 희어서 슬프구나!

나는 나라도 집도 없단다.

대리석 테이블에 닿는 내 뺨이 슬프구나!

- 「카페 프란스」 부분

교토의 시내 카페를 즐겨 찾았다는 지용이 자신의 경험을 담아 쓴 시이다.¹⁴⁾ 카페의 외부 묘사로 시작하는 이 시는 카페를 찾아가는 과정의 밤거리도 꽤 인상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당시 교토의 풍경 중에 전차의 소음과 내온 불빛은 근대적 도시의 풍모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는데¹⁵⁾ 젖은 도로에 비친 이 몽롱하고도 현란한 불빛을 흐느낀다고 표현해 낸다. 게다가 커튼 아래에서 졸고 있는 여급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나라도 집도 없”는 존재로 부각한다. 지용은 매우 섬세한 감각 이미지를 활용하여 근대문명의 상징인 카페를 우울한 장소로 사유화하는 데 상당한 솜씨를 보여준다.

결국, 카페라는 장소는 시인 정지용의 감각에 의해 포착된 근대의 표상인 셈이다. 그러나 근대를 담보하는 이 장소는 개인의 슬픔을 표현하는 역할에 충실하다. 종려나무와 장명등으로 묘사된 카페 입구, 흐느끼는 불빛의 도로, 그 속에서 조는 여급과 남달리 흰 손의 시적 화자, 그리고 대리석 테이블에 닿는 뺨 등으로 장소가 구성되기 때문이다. 감각에 의해 연출되고 사유화되는 장소는 그러므로 시인의 문학적 자의식을 표출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14) 한 연구자는 정지용이 즐겨간 카페가 교토의 변화가에 있는 ‘고마도리’일 거라고 추정한다. 지용도 「茶房 「고마도리」 안에 연지 짙은 색시들」이라는 산문에서 ‘고마도리’ 양복점 안에 딸린 좁고 길다란 다방에는 칸막이가 있는 좌석이 있어서 잡지 동인들이 모여 잡지 얘기하기가 좋았다 한다. 김동희, 「정지용과 ‘교토’라는 장소」, 『한국시학연구』 45, 한국시학회, 2016. 참조.

15) 김동희, 앞의 글, 128-130쪽.

2-2 연출된 장소와 지용의 근대

다른 소재들과 마찬가지로 시에서 장소는 단순히 물리적 배경으로서 기능 하지만은 않는다. 주제와 무관한 듯 보일지라도 그것은 시인이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투사하기 위해 선별하고 변형한 일종의 창조물이기 때문이다. 장소는 시인의 창작의도를 충분히 반영한다. 경이와 동경 같은 우호적인 것에서부터 분노와 적의 등 적대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감정들이 그 배경에 덧입혀진다. 시적 화자와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장치로서 장소는 연출된 실체인 셈이다.

따라서 장소에는 장소를 그려내는 내부자적 시선이 늘 포함되어 있다. “경험과 밀착된 관계를 갖는 장소는 그러므로 장소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주체의 입장에서는 주체가 장소의 내부성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감각적으로 교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⁶⁾고 한 윤의섭의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그의 언급은 장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과 장소 경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시선에 맞닿은 장소는 일정한 유형 속에서 시인의 문학적 자의식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장소의 선택과 재현의 문제는 작가의 시선과 당대 사회, 문화 공간의 시선 체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분석¹⁷⁾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지용이 바라본 근대는 우선 놀랍고 신기한 것이었다. 유학생활을 위해 바다를 건너는 그에게 눈에 보이는 장소는 당연하게도 경이로웠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이로움이 기대로 가득한 자에게 만족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나지익한 하늘은 백금빛으로 빛나고

16) 윤의섭, 「정지용 후기시의 장소성」, 『한국문학이론연구』 46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130쪽.

17) 문재원, 「문화전략으로서의 장소와 장소성」,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장소성의 형성과 재현』, 해안, 2010, 참조.

물결은 유리판처럼 부서지며 끓어오른다.
동글동글 굴러오는 짙 바람에 뺨마다 고운 피가 고이고
배는 화려한 짐승처럼 짓으며 달려나간다.
문득 앞을 가리는 검은 해적 같은 외딴 섬이
흩어져 나는 갈매기 떼 날개 뒤로 문짓문짓 물러나가고,
어디로 돌아다보든지 하이얀 큰 팔굽이에 안기어
지구덩이가 동그랗다는 것이 즐겁구나.
넥타이는 시원스럽게 날리고 서로 기대선 어깨에 유월 별이 스며들고
한없이 나가는 눈길은 수평선 저쪽까지 기폭처럼 퍼덕인다.

※

바닷바람이 그대 머리에 아른대는구료,
그대 머리는 슬픈 듯 하늘거리고.

바닷바람이 그대 치마폭에 이치대는구료,
그대 치마는 부끄러운 듯 나부끼고.

그대는 바람 보고 꾸짖는구료.

※

별안간 뛰어들삼아도 설마 죽을라구요,
바나나 껍질로 바다를 놀려 대노니,

젊은 마음 꼬이는 굵이도는 물굽이
둘이 함께 굵어보며 가비얍게 웃노니.

- 「감관 위」 전문

지용은 현해탄을 오가면서 몇 편의 바다 시를 썼다.¹⁸⁾ 대부분의 시는 대체로 「바다1」에서 기술한 “흰 연기 같은/ 바다”의 “이러한 풍경”을 묘사하는데 주력한다. 천막처럼 퍼덕이는 해협, 바둑돌처럼 가라앉는 물결, 유리판 같은 하늘, 청땃잎으로 빗댄 푸른 바다 등이 그러하다. 가장 늦게 발표한 「바다2」¹⁹⁾의 표현들, 예컨대, 과도치는 바다를 “연잎인양 오무라들고……피고”처럼 동화적 상상력으로 묘사한 것에 이르기까지 그의 시는 시인이 본 바다를 생생하게 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인용한 「갑판 위」는 27년 1월에 『문예시대』에 발표했다가 『시문학』2호(30년 5월)에 실고 다시 시집에 수록한 시이다. 발표가 이른 시이다. 바다를 보는 화자의 시선이 경이감으로 가득하다.²⁰⁾ 감정을 절제하여 감각적 표현의 효과를 끌어올리는 솜씨가 남다르다. 유학 생활 중에 돌이켜 본 이 낯선 경험은 개인적으로는 선구적 삶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그 경험을 새로운 창작기법으로 소개할 때, 그것이 자신의 문학을 주체적 개인의 근대로 나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바다 시편들에 반영된 시인의 경이감은 「갑판 위」에서 보듯이 다소의 만족감을 포함한다.²¹⁾ 갑판 위에 선 화자에게 풍경은 “백금빛”이고 “유

18) 『정지용시집』에 수록된 바다 관련 시편은 모두 열두 편이다. 시집 앞부분에 널리 알려진 「바다1」, 「바다2」가 있고 뒷부분에 다시 「바다1」에서 바다5」까지 연작이 실렸다. 「해협」, 「다시해협」, 「갑판위」, 「선취」, 그리고 「갈매기」 등을 포함하는 숫자다. 「갈릴리 바다」는 신앙 속에서 상상한 바다이므로 제외한다.

19) 「바다2」는 『정지용시집』에 수록되었고 그해 겨울 『시원』5호(35년 12월)에 발표되었다.

20) 송기환은 정지용의 바다에도 계몽의 요소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지용이 자신의 문학에 계몽의 의지를 발산하지 못한 한계를 이미지스트로서의 위상에서 찾았지만 육당의 바다가 지니는 건강성과 역동성이 지용의 시에 없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송기환, 「정지용 시에서의 바다의 의미」, 제32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2013, 참조.

21) 만족감은 도시 생활자의 그것으로도 나타난다. 30년 8월에 발표한 「아침」을 보면 문명 향유자로서의 삶을 즐기는 내면이 장소묘사에 잘 드러난다. “프로펠러 소리……/선연한 커브를 돌아 나갔다.//쾌청, 질푸른 유월 도시는 한 층계 더 자랐다.//나는 어깨를 고르다./하품…… 목을 뺏다./붉은 수탑 모양 하고/피어오르는

리판”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죄다 빛나고 곱고 화려하고 즐거우며 시원스럽다. 두려운 것들은 “해적 같은 외딴 섬”처럼 뒤로 물러날 뿐이다. 치마를 나누끼며 서있는 그대로 말미암아 생기는 느낌일 수 있고, 현재에 대한 만족,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한껏 부푼 결과이기도 하다.

이렇듯 장소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일수록 넥타이를 날리며 바다와 그녀를 바라보는 화자의 위상은 더욱 선명하게 부각된다. 표현 대상을 감각적으로 취재하는 개인을 통하지 않고는 장소와 교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각을 주관하는 개인은 “투명한 어족이 행렬하는 위치에/ 훗하게 차지한 나의 자리”(「해협」)를 만족스럽게 바라보기도 하고 “스물한 살 적 첫 항로에/ 연애보다 담배를 먼저 배웠.”(「다시 해협」)던 낭만을 기억하기도 한다.

그런데, 지용은 한없이 흡족한 이 상황에서도 묘한 여운을 남긴다. “그대”가 등장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의 상황은 행복에 겨운 자들의 것만도 아닌 것이다. 치마와 함께 흘날리는 “그대 머리”를 보고 “슬픈 듯”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두 젊음 마음”의 관계에 일말의 우울을 상징한다.²²⁾

사실, 『정지용시집』을 장악하고 있는 몇 가지 정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우울이다. 경이감이 만연한 시에서조차 다소의 우울이 묻어있는 것은 지용의 기질에서 연유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제국의 대도시로 향하던 식민지 청년의 현실 또한 상존한 원인이겠다. 도외시킬 수 없는 현실과 개인의 삶 사이에는 늘 좁혀지지 않는 거리가 자리 잡고 있었고 지용은 그 어긋남 속에서 자주 우울을 만났다. 고향을 떠나 경성을 살았고 경성을 떠나 교토를 경험한 그에

분수를 물었다……뿔었다……/햇살이 함빡 백공작의 꼬리를 폈다.//수련이 화관을 폈다.//오므라졌던 잎새. 잎새. 잎새./방울방울 수은을 받쳤다./아아 유방처럼 솟아 오른 수면!/바람이 불고 계우가 미끄러지고 하늘이 돈다.//좋은 아침-나는 탐하듯이 호흡하다./때는 구김살 없는 흰 돛을 달다.”(「아침 전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대 문화 생활자로서의 만족감이 그의 시에는 일정 부분을 차지한다.

22) 「해협」에서는 “훗하게 차지한 나의 자리여”라며 훌가분한 자기의 처지에 만족하다가도 이내 “해협 오전 두시의 고독” 속에서 “눈물을 소녀처럼 짓자”고 한다. 「다시 해협」에서도 항해를 둥근 지구를 기어가는 것으로 묘사하며 “호수운 것”으로 즐기다가도 섬들 사이 외진 곳에서는 “당나귀처럼 처량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게 이 체험은 경이로운 것이기도 했지만 다소 혼란스러운 것이기도 했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과 예술인에게 우울은 예술가의 표정이자 낭만적인 감정으로도 이해되고, 자기성찰의 순간마다 느끼는 운명의 감정으로도 떠오르며, 이상과 배치되는 현실을 날카롭게 인식하는 감성형식으로도 받아들여졌다는 연구 결과는 지용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인지할 때, 체념과 노스텔지어가 발생하고 세계의 유대와 호의를 상실한 지점에서 개인의 처지는 고독과 공허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근대를 사유하는 감정과 다르지 않다. 개인보다 공동체가 우세하고 공동체에서 개인이 분리 인식되지 않았던 근대 이전을 감안하면, 소외, 고립감, 허무감, 동경 등은 근대의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²³⁾ 식민주의와 근대성이 교차하고 중첩되는 조선사회에서 멜랑콜리한 얼굴은 지식인 혹은 문인이 가져야 할 ‘사회적 얼굴’²⁴⁾이라는 언급 역시, 지용의 우울이 단순히 한 개인의 취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정지용의 시에 나타나는 우울은 근대적 개인의 존재를 확인하는 증표이기도 하다.

배 난간에 기대서서 회파람을 날리나니
새까만 등솔기에 팔월달 햇살이 따가워라.

금단추 다섯 개 달은 자랑스러움, 내쳐 시달림.
아리랑 조라도 찾아볼까, 그 전날 부르던,

아리랑 조 그도 저도 다 잊었읍네, 인제는 버얼써,
금단추 다섯 개를 빼우고 가자, 파아란 바다우에

담배도 못피우는, 수탉같은 머언 사랑을

23) 정연희, 「이태준 문학의 멜랑콜리와 문화적 모더니티」, 『국어문학』69권, 국어문학회, 2018, 참조.

24) 정경운, 「근대 문인의 ‘사회적 얼굴’로서의 우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0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1, 311쪽.

홀로 피우며 가노니, 너긋너긋 흔들 흔들리면서.

「선취」 전문-27년 6월,

제복을 입은 자랑스러움이 곧 “시달픔”으로 이어지는 정확한 연유는 알 수 없다. “금단추 다섯 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화자의 마음 한편에 전날의 “아리랑 조”를 잊고자 하는 부대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과 사랑은 멀고 지금은 혼자라는 사실이 내용을 이룬다. 뱃멀미에 빚댄 이 우울은 배 난간”이라는 장소를 따가운 햇살의 청명한 곳이었다가도 이내 “머언 사랑”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장소로 전환한다. 금단추 모두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의 자괴감이 드는 원인은 맥락상 “머언 사랑”의 상실과 ”홀로“의 고독이다.

상실과 고독이 유발하는 이 우울을 지용은 「항수」에서처럼 노스텔지어로 드러내기도 하지만 대체로 「슬픈기차」나 「황마차」처럼 이루지 못한 사랑이나 잃어버린 연애로 표출한다. 이런 점에서 지용의 우울은 낭만적 우울이라고 할 수 있다. 「뇌호내해(瀬戸内海)」²⁵⁾의 바닷가를 달리는 기차를 소재로 봄날의 바다와 들판을 묘사한 「슬픈 기차」는 언 듯 바깥 풍경의 평화로움에 주목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우울로 가득한 기차의 내부를 드러내는데 주력한다. “아지랑이가 남실거리는 섬나라 봄날”에 기차는 “노오란 배추꽃 비탈밭 새로”, 그리고 “복스런 돛폭에 바람을 안고 못배가 팽이처럼 밀려가”는 바닷가를 달린다. 섬세하게 묘사된 장소 경험은 그러나 화자의 상심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누나다운 입술”을 지닌 연상의 여인 “마담R”에게 화자는 연정을 품어보지만 이미 청년이 된 자신을 어리게만 보는 여인으로 인해 “사랑과 같은 어질머리”로 가득한 기차는 한마디로 슬픈 기차다. 지용의 관심은 이국적인 풍경보다는 슬픔에 더 닿아있다.

기차 내부의 장소경험을 형상화했다는 측면에서 「슬픈 기차」는 독특한 시이다. 특히, 차창 안쪽의 자리를 바깥 풍경에 대비하면서 시적 화자의 슬픔을 강조하는 장소로 만들어어나가는 것이 인상적이다. 제국의 들판을 달리면서

25) 혼슈와 큐슈 및 시코쿠로 둘러싸인 바다를 뜻한다.

도 짝사랑을 떠올리는 현실인식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지만 이 낭만적 우울이 근대를 경험하고 또 살아가는 지용의 방식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는 세계와의 유대를 상실한 식민지 청년의 우울을 감당하는 데 근대 문명 속의 장소를 적절하게 할애한다.

그 고달픈 듯이 깜박깜박 졸고 있는 모양이- 가여운 잠의 한 점이랄지요- 부칠 데 없는 내 맘이 떠오릅니다. 쓰다듬어 주고 싶은, 쓰다듬을 받고 싶은 마음이올시다. 가엾은 내 그림자는 검은 상복처럼 지향없이 흘러 내려갑니다. 축축이 젖은 리본 떨어진 낭만풍의 모자 밑에는 금붕어의 분류와 같은 밤경치가 흘러 내려갑니다. 길 옆에 늘어선 어린 은행나무들은 이국 척후병의 걸음 제로 조용히 흘러 내려갑니다.

이따금 지나가는 늦은 전차가 끼이익 돌아 나가는 소리에 내 조고만 혼이 놀란 듯이 파다거리나이다. 가고 싶어 따뜻한 화롯가를 찾아가고 싶어. 좋아하는 코란경을 읽으면서 남경콩이나 까먹고 싶어. 그러나 나는 찾아 돌아갈 데가 있을라구요?

네거리 모퉁이 붉은 담벼락이 흠뻑 젖었소. 슬픈 도회의 밤이 젖었소. 마음은 열없이 사랑의 낙서를 하고 있소. 홀로 글썽글썽 눈물짓고 있는 것은 가엾은 소니아의 신세를 비추는 빨간 전등의 눈알이외다. 우리들의 그전날 밤은 이다지도 슬픈지요, 이다지도 외로운지요. 그러면 여기서 두 손을 가슴에 여미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릿가?

기다려도 못 오실 이 때문에 줄리온 마음은 황마차를 부르노니, 회파람처럼 불려오는 황마차를 부르노니, 은으로 만들은 슬픔을 실은 원앙새털 같은 황마차, 꼬옥 당신처럼 참한 황마차, 찰 찰 찰 황마차를 기다리노니.

「황마차」 2연, 3연, 5연, 8연

「황마차」는 「슬픈 기차」 마찬가지로 산문시이다. 이동하는 화자가 나온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갖지만 한밤중의 비오는 교토를 꽤 섬세하게 그려내

고 있는 시로서, 「슬픈 기차」와는 아주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²⁶⁾ 밤거리의 가로수와 상점들, 네거리의 시계탑뿐만 아니라 전차와 전등, 게다가 도로위의 빛물에 산란하는 불빛까지를 세밀하게 포착하여 이국 도회의 밤풍경을 실감나게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화자에게 이 장소는 “슬픈 도회”이다. 화자는 밤을 걷는 “가없는 내 그림자”를 바라보아야 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이는 “쓰다듬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고 “기다려도 못오실이 때문”이며 그로 인해 “이다지도 외로운” 탓이다.

그 결과, 장소로부터 소외된 개인이 탄생한다. 개인과의 유대관계를 상실한 도회는 따뜻한 “화룻가”를 그리는 자에게 “돌아갈 데”가 없는 상실의 장소일 뿐이다. 주목할 것은 장소 경험을 대동한 섬세한 묘사 속에서 고독과 소외를 구현할 때 근대를 사유하는 개인의 등장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이다.²⁷⁾ 지용에게 허용된 근대와 근대인의 모습은 장소에서도 표출되듯이, 매우 우울하다.

하지만, 여러 연구자들의 지적처럼 지용의 우울은 깊이 있는 현실인식이나 진보적인 시인의식으로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나는 나라도 집도 없단다.”(「카페 프란스」), “비 날리는 이국 거리를/ 탄식하며 헤매노나.”(「조약돌」), “길옆에 늘어선 어린 은행나무들은 이국 척후병의 걸음제로”(「황마차」)처럼 일단의 현실인식이 간간히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 생각은 대부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에 귀착한다.

실상, 「황마차」에는 근대 도시이자 제국의 도시, 교토에 대한 공포가 드러나 있다. 전차 소리에 혼이 놀라거나 불빛의 밤거리에 산란한 마음은 거만한 시계탑과 피뢰침의 높이에 압도된다. 그 높이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야경

26) 27년 6월에 『조선지광』에 발표한 시이다. 발표지면에 ‘25년 11월 교토’라고 명기했다.

27) 장소로부터의 소외는 「압천」에서도 잘 나타난다. 지용은 교토의 ‘가모가와(鴨川)’ 근방에서 하숙했다. 불만스러운 연애경험을 동네를 흐르는 압천 풍경에 활용한 듯하다. “날이 날마다 님 보내기”를 하지만 “찬 사람의 마음”으로 인해 “오랑쥬 껌질 씹는 젊은 나그네의 시름”만 깊어간다. 해가 지는 “압천 십 리 별”에서 화자는 철저하게 소외된다.

순사가 나를 쫓아올 것 같은 공포가 시의 전면에 은근하다. 새장의 종달새를 자신의 처지에 빗대어 동질감을 느끼는 연유이다. 그러나 이 공포를 이내 남의 부재로 수렴한다. 외로움과 슬픔의 표정은 낭만적인 우울로 마무리된다. 이러한 현상은 그가 지니고 있는 문학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동지사 대학에서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 연구를 논문으로 제출했다. 서구 문예사조를 공부한 것이 문학을 정립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몇 편의 시론에서 밝힌 바, 그가 시인의 내면 표출을 중시하는 표현론에 기울어 있었다는 점, 게다가 ‘이념이나 사상’ 보다는 언어미학에 기초한 ‘미의 원천’을 더 중시했다는 점 등은 그의 문학적 지향을 가늠하게 한다.²⁸⁾ 이승원은 이러한 태도를 “시의 순수성만을 고집하면서 시의 완성을 위해 모든 것이 봉사해야 한다는 일종의 시 절대론”²⁹⁾이라고 진단했다.

지용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고독해질 때, 그 고독의 원인을 불합리한 세계보다는 개인적인 곤란에서 찾았다. 이 낭만적 우울은 “현실에 대한 시의 능동적 기능이라든가 역사와 민족에 대한 시인의 구체적 책무 같은 것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³⁰⁾가 되었다.

3. 결론

정지용은 첫 시집인 『정지용시집』을 1935년에 출간하였다. 우리 문단에 제대로 된 근대시 선보였다는 점에서 놀라웠다. 어찌 보면 30년대는 20년대와 마찬가지로 미흡한 근대시들이 상존하였고 근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투하던 시기였다. 재래의 시가와 서구 사조를 선부르게 따라하던 근대시들이 섞여있던 일종의 과도기였다. 『정지용시집』은 20년대의 『진달래꽃』과 더불어

28) 이승원, 앞의 글, 참조.

29) 이승원, 앞의 글, 306쪽.

30) 이승원, 『정지용 시의 심층적 탐구』, 태학사, 1999, 218쪽.

이 혼란한 과도기를 벗어나도록 견인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 글이 살펴보려는 것은 정지용의 시가 어느 정도 근대성을 확보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소월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차이를 가늠하고자 했다. 방법론으로 장소에 주목했다.

소월은 민요를 계승하면서도 재래의 율격과 정서를 근대시로 전화하는 데 성공했다. 주체적 시선을 확보한 개인을 도입했다. 집단 공동체의 윤리의식과 미의식에서 개인의 세계관과 언어의식을 분리해냈으며 그 점에서 놀라운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소월의 시에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요소가 남아있었다. 특히, 시에 구현된 장소는 다소 불투명했고 상투적이었으며 주체적 개인의 경험을 선명하게 구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정지용은 예민한 감각을 주관하는 개인과 그로인해 창조되는 장소를 다룰 줄 알았다.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했으며 그로인해 확보되는 풍경과 상황을 사유화했다. 세계와 소통하는 개인, 개인에 의해 탄생하는 세계가 가능했다. 20년대의 시를 한 단계 끌어올리며 우리시의 근대화를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지용은 유학생생활에서 습득한 서구의 문예이론을 본인의 창작에 적극 실험하였고 성공하였다. 경험한 근대와 근대에 대한 자의식을 특정한 장소감으로 표출하였다. 경민감, 만족감도 초기시를 구성하는 정서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울이었다.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젊은 나이에 근대문명과 제국의 도회를 경험한 유학생으로서, 지용이 연출한 근대적 장소에는 자주 우울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유발하는 현실인식은 깊이 있는 문제의식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한 개인의 낭만적인 우울로 수렴되고 말았다. 비록, 이것이 당대 조선 문인의 어쩔 수 없는 선택 중의 하나라 해도 우울의 정체를 간파하지 못한 것은, 정지용 시의 한계가 되었다.

참 고 문 헌

- 권영민 엮음, 『정지용전집』, 민음사, 2016
- 권정우, 「정지용 시론 연구」, 『개신어문연구』 25집, 개신어문학회, 2007
- 김동희, 「정지용과 ‘교토’라는 장소」, 『한국시학연구』 45, 한국시학회, 2016
- 김우창, 『궁핍한 시대의 시인』 1권, 민음사, 1977
- 남기혁, 「정지용 초기시의 보는 주체와 시선의 문제」, 『한국현대문학연구』, 한국현대문학회, 2008
- 문재원, 「문화전략으로서의 장소와 장소성」,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장소성의 형성과 재현』, 해안, 2010
- 송기환, 「정지용 시에서의 바다의 의미」, 제32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2013
- 심승희, 「장소 개념의 스펙트럼과 잠재력」,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편, 『현대 문화지리의 이해』, 푸른길, 2013
- 윤의섭, 「정지용 후기시의 장소성」, 『한국문학이론연구』 46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 이광호, 「정지용 시에 나타난 시선 주체의 형성과 변이」, 『어문논집』 64, 2011
- 이광호, 『시선의 문학사』, 문학과지성사, 2015
- 이승원, 「정지용 시론」, 『한국현대문학연구 2』, 1993
- 이승원, 『정지용 시의 심층적 탐구』, 태학사, 1999
- 정경운, 「근대 문인의 ‘사회적 얼굴’로서의 우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0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1
- 정연희, 「이태준 문학의 멜랑콜리와 문화적 모더니티」, 『국어문학』 69권, 국어문학회, 2018
- 조명숙, 「장소와 ‘감각’의 상관성 연구-정지용의 초기시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42, 2014
-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 메를로 폰티, 류의근 역,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02

탐 크레스웰, 심승희 역, 『장소』, 시그마프레스, 2012년
이 푸 투안, 구동희 외 역, 『공간과 장소』, 대운, 2005

【Abstracts】

Modernity of place on Jeong Jiyong's early
poetry

Shim, Jaehui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lace on Jeong Jiyong's early poetry. The place in the poem reflects specific experiences of a poetic speaker. Therefore, a individual who has a sensory response appears in the place. In this sense, a place in the poem is a standard for identifying modernity.

At first, Kim Sowol's poems are compared with Jeong Jiyong's poems. It is a kind of a way to understand the modernity of Jiyong's poetry. Jiyong took advantage of very delicate sensory on writing poem. So, the appearance of a individual with a sense is inevitable. An empirical place appears by the eyes of an independent individual. Jiyong took Sowol's poetry to a new level.

Jiyong learned western literary theories from his study abroad. He actively experimented with creation and succeeded. He expressed his experience of modern times in a sense of place. A sense of wonder and satisfaction are the emotions that make up the initial period, but the most representative is the melancholy. As a colonial intellectual, an international student who has experienced modern civilization, the place on Jiyong's poem often featured melancholy. However, it did not develop into a deep problem-conscious mind. Although this was one of the inevitable choices of Joseon writers of the time, it became a limit to Jeong Jiyong's poetry.

Key words : place, sense of place, individual, modernity, melancholy

이 논문은 2019년 11월 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11월 18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11월 2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